

‘연패의 늪’ 광주FC, 안방서 돌파구 찾는다



2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안양전
상대 전적 2승 1무 4패...공·수 전면 강화해야

5연패의 타널에 갇힌 프로축구 광주FC가 안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광주는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22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하며 5연패에 빠졌다. 그 결과 성적은 1승 3무 5패 승점 6으로 리그 12위. 하위권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위권과는 이미 승점 6점차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다. 11위 김천상무(승점 7점), 10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9점), 9위 부천FC1995(승점 10점) 정도만이 역전 가능한 위치에 있다.

당장 한 경기 결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번 안양전 결과에 따라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사실 광주의 올 시즌 상반기 부진은 예고됐다. 주축 선수들의 이적으로 전력 누수가 발생한 데다 FIFA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선수단 구성이 쉽지 않았다.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제한된 자원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부상 약재까지 이어졌다. 베테랑 최경록과 신장 무 등 공격에서 비중이 큰 자원이 이탈하면서 팀 전력은 더욱 약화했다.

공격 전개와 마무리 모두 답답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록이 이를 보여준다. 광주는 5연패 기간 단 1골에 그친 반면 14실점을 허용했다. 시즌 전 체로 봐도 9경기 5골로 리그 최저 득점에 머물고 있다. 슈팅 수는 70개, 유효슈팅은 23개로 모두 리그 최하위권이다. 수비 역시 18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며



지난 22일 하나은행 K리그1 2026 9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 선수단과 포항스틸러스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FC



이정구 감독

흔들리고 있다. 공수 전반에서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온전한 전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름시장이 열리는 6월 빠른 반등을 위해서는 선수단 전반에 걸친 성장이 이

뤄져야 한다.

최근 포항전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졌다. 광주는 슈팅 5개, 유효슈팅 3개를 기록하며 공격 지표에서 포항을 앞섰다. 경기 초반 실점 이후에도 수비 조직을 빠르게 가다듬으며 대량 실점 없이 경기를 끌고 간 점은 긍정적이었다.

젊은 자원들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센터백 공배현

은 포항전에서 지상 경합 4회를 모두 이겨내며 100% 성공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클리어링 5회, 차단 6회를 올리며 수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포항의 핵심 공격수 이호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향후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안양을 상대로 한 상대 전적은 광주에 자신감을 안겨주는 요소다. 광주는 안양

과의 역대 전적에서 12승 8무 5패로 앞서 있다. 최근 3경기 상대전적은 2승 1무로 압도적이다. 특히 홈에서는 2018년 이후 8경기 연속 무패(5승 3무)를 이어오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경기는 양 팀 사령탑의 인연으로도 관심을 끈다.

광주 이정구 감독과 안양 유병훈 감독은 선수 시절 룸메이트로 지냈고, 오랜 시간 지도자 생활을 거쳐 프로 사령탑에 오른 공통점도 있다.

가까운 사이인 두 감독이 처음으로 벤치에서 맞붙는 만큼 전술 대결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다만 안양의 최근 흐름은 만만치 않다. 안양은 FC서울, 울산HD 등 선두권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듭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테우스, 토마스, 아이턴 등 외국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플레이가 강점이다.

결과 광주로서는 안양전 강세라는 좋은 기억을 살리면서도, 공수 양면에서 보다 높은 집중력을 보여줘야 한다. 실수를 줄이고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가 이번 안양전에서 승리를 따내며 분위기 반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정현·권순우, 광주오픈 8강서 첫 ‘코리안 더비’

나란히 16강 통과...정현, 2년 연속 8강 진출 성공
최초 공식 맞대결...“팬들에게 좋은 경기 보여줄 것”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29·김포시청)과 권순우(28·국군체육부대)가 광주오픈에서 나란히 8강에 오르며 첫 공식 맞대결을 펼친다.

정현과 권순우는 23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총상금 10만 7000달러)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먼저 정현은 세계랭킹 179위 클레망시 드릭(프랑스)을 세트스코어 2-0(7-5, 7-5)으로 꺾고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경기 내용은 치열한 접전이었다. 정현은 1세트 초반 흐름을 내주며 4-5까지 밀렸지만, 곧바로 균형을 맞춘 뒤 브레이크

점진 끝에 6-5로 역전했다.

이어진 12번째 게임에서는 9차례 듀스가 이어지는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며 세트틀 7-5로 마무리했다.

2세트 역시 흐름은 비슷했다. 5-5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앞서 나간 정현은 마지막 게임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며 승리를 확정했다.

이로써 정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정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8강에 올라 기쁘다”며 “한국 팬들 앞에서 한 경기라도 더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브레이크를 주고받는 흐름이 반복됐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8강에 합류했다. 권순우는 세계랭킹 227위 알리아 시마킨(프랑스)을 2-0(7-6(2), 6-3)으로 제압했다.

1세트는 쉽지 않았다. 권순우는 5-6으로 끌려가다 6-6 동점을 만들었고, 타이 브레이크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세트를 따냈다.

기세를 탄 권순우는 2세트 초반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가져오고, 이후 안정적인 서브와 포핸드 스트로크를 앞세워 승리를 완성했다.

권순우는 “시마킨과의 이전 맞대결을 바탕으로 서브 패턴을 분석한 것이 도움이 됐다”며 “모든 경우를 대비하기보다

한 방향을 정해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순간 서브가 잘 들어간 점이 승리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두 선수는 24일 8강에서 맞붙게 됐다. 두 선수의 공식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순우는 “정현 형과는 연습 경기만 해봤는데 공식 경기는 처음이라 설렌다”며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광주시테니스협회는 한국 선수 두 명의 8강 진출을 기념해 24일 경기 종료 후 정현과 권순우의 사인이 담긴 요넥스 라켓을 추첨을 통해 팬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포핸드 스트로크하는 정현 21일 광주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단식 32강전에서 대한민국 정현이 대만의 제이슨 정 상대로 포핸드 스트로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15점제’로 20년 만 개편...내일 총회에서 결정

안세영·서승재·김원호 등
뒷심 강한 한국 대표팀 변수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김원호와 서승재. 연합뉴스

배드민턴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15점제’ 도입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회원국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점수 체계 도입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안건이 가결될 경우, 세계 배드민턴은 2006년 21점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은 매 게임 15점을 먼저 얻는 쪽이 승리하는 구조다.

BWF는 앞서 2018년과 2021년 ‘11점 5판 3승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두 차례 모두 가결 정족수인 찬성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15점제는 기존 11점제의 절충안 성격으로, BWF가 제도 개편을 위해 내놓은 승부수다.

BWF가 내세운 명분은 선수 보호와 운영 효율성이다.

연간 30여 개의 월드투어와 세계선수권 등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낮추고, 경기 시간을 단축해 중계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 대표팀에 미칠 파장이 관건이다.

게임당 점수가 6점이나 줄어들면 경기 템포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초반 기싸움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과 남자 복식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 등 우리 대표팀 주역들은 탄탄

한 체력을 바탕으로 후반에 승기를 잡는 ‘뒷심’에 강점이 있다.

점수가 줄어들면 특유의 끈질긴 랠리로 상대를 압박할 시간이 부족해져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러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 실제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김동문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5점제가 우리 선수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같은 선수들이 정상에서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기량 때문이지 특정 경기 방식 때문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바뀌면 견제가 심해질 수 있지만, 결국 실력 차이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은 경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기 때문에 후반에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단순히 사동이 늦게 걸리는 ‘슬로 스타터’인 것은 아니다. 우리 선수들은 금방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